

서 평 지

서평 제목	육체의 위기	참가번호	2023-12
도 서 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는 공간일 것이다. 인간이 육체를 가진 시점부터 삶은 물리적 경험으로 제한된다. 우리는 오감에 의존해 살아가고, 성장과 노화를 겪으며 변화한다. 정신 역시도 뇌의 물리적 시퀀스를 통해 발생한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그렇기에 육체는 인간의 존재성을 대표한다. 인간의 몸은 가능성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규정짓는 모순적인 특성을 지닌다. 해당 작품에서 육체의 모순은 곧 존재의 위기로 직결된다. 유한한 삶에서 오는 가벼움은 긍정과 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가치에 대한 고뇌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한이라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존재에 대한 속박과 끊임없는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작중 인물들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밀란 쿤데라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운명의 덧없음을 꼬집는다.

가벼움을 비난할 수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프라하의 봄’을 바탕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육체를 짓밟음과 동시에 마음을 붕괴시켰다. 당시 수많은 가치가 파괴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도외시되었다. 작중 인물들이 존재의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섹스였다. 이 과정에서 ‘토마스’와 ‘테레사’는 각각 가벼움과 무거움에서 가치를 얻고자 한다. 가벼움은 곧 자유로움에 대한 표방이기도 하다. 토마스는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유연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반면 테레사는 육체적 음란을 기피하고 정신적 수양을 쌓음으로써 현실을 이겨내고자 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두 인물이 서로 상반되며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벼움과 무거움은 상호 보완적이며, 때로는 의존적이기도 하다. 테레사가 고뇌를 통해 만족감을 얻고, 토마스가 자유로움을 통해 통찰력을 얻었듯이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가벼움이 금기로, 무거움이 지향점으로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섞일 수 없을 것만 같던 두 인물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냈듯이, 모든 상반된 개념은 삶에 있어 필수적이며 회피할 수 없는 가치이다. 가벼움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행위는 결국 가벼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토마스나 테레사가 타자에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간극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서평 제목	육체의 위기	참가번호	2023-12
-------	--------	------	---------

행복의 어귀에서

존재는 끊임없이 탄생하고 소멸한다. 이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모든 가치는 유한성을 바탕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모든 순간이 값지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직선적인 시간은 우연과 운명이라는 미명 하에 낙화(落花)하는 인간의 덧없음을 예찬한다. 소멸의 과정은 곧 행복을 향한 여정이며, 그 정의와 경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드러난다. 작품에서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선택’을 강조한다. 선택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가능성을 배제시킴으로써 불확실성과 후회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역설적인 것이며,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개개인의 가치관에는 분명 뚜렷한 차이가 자리하기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토피아가 존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토마스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듯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세상 또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곧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선문답으로 돌아온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과 화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과 화해함으로써, 종래에 살아가는 것과 화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행복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를 하듯이 말이다.